

-아/어야지요

당연한 의무·다짐 — ~해야지요, ~해야겠다

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‘당연하다’는 느낌을 담아 말합니다. 자기 자신에게 쓰면 다짐이 되고, 다른 사람에게 쓰면 나무라는 말에 가까워집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끝 모음이 ㅏ 또는 ㅑ	-아야지요	가다 → 가야지요
그 밖의 모음	-어야지요	먹다 → 먹어야지요
하다 동사	해야지요	공부해야지요
구어 축약	-아/어야쵸	해야쵸
자신에게	-아/어야지	일어나야지
중립적인 표현	-아/어야 되다	가야 돼요

■ 언제 쓰나요

모음은 -아요/어요 규칙을 따릅니다: 해야지요, 가야지요, 먹어야지요. 말할 때는 다음처럼 줄어듭니다: -아/어야쵸. 반말 형태는 -아/어야지입니다.

자기 자신에 대해 말할 때는 다짐을 나타내며, 혼잣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: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. 듣는 사람이 꼭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.

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함축합니다: 약속을 지켜야지요. 지요 부분은 서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를 담고 있어서 나무라는 느낌이 생깁니다. 뒷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

단순히 필요한 일을 말하는 -아/어야 되다와 비교하면, 이 어미는 그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덧붙입니다.

■ 예문

- 1 내일부터는 일찍 일어나야지.
- 2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요.
- 3 아픈데 병원에 가야쵸.
- 4 이제 술을 준비해야지요.
- 5 밥은 제때 먹어야지요.
- 6 올해는 꼭 운동을 시작해야지.

■ 비교

-아/어야 되다
-아/어야 되다는 필요한 일을 전하고, -아/어야지요는 그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덧붙입니다. 뒤의 것에는 태도가 담기고, 앞의 것에는 담기지 않습니다.
약속을 지켜야 돼요. (지켜야 한다) / 약속을 지켜야지요. (당연히 지켜야지요)

-(으)세요
공손한 요청은 부탁하는 것이고, 이 어미는 의무를 지적하는 것입니다. 뒷사람에게는 요청 형태만 쓸 수 있습니다.
병원에 가세요. (가시라는 부탁) / 병원에 가야쵸. (가야 하지 않느냐)

-지요?
안에 들어 있는 지요도 같은 요소로, 서로 아는 내용을 전제합니다. 바로 그 때문에 문장이 가볍게 꾸짖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.
약속을 지키지요? (약속은 지키쵸, 그렇지?) / 지켜야지요. (지켜야 마땅하지요)

■ 주의

- ✗ 이제 술을 준비하어야지요.
- 이제 술을 준비해야지요.
하다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어미 앞에서 해가 됩니다.
- ✗ 부장님, 좀 쉬셔야지요.
- 부장님,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.
이 어미는 상대가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함축합니다. 뒷사람에게 쓰면 꾸중처럼 들립니다.
- ✗ 날씨가 좋아야지요. — 단순한 서술로 쓴 경우
-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어요.
이 어미는 사람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씁니다. 날씨에 대한 바람은 -았/었으면 좋겠다를 쓰세요.